

받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바뀌다



강민정 씨(65세)는 정기적으로 대구 범물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손녀가 스마트폰으로 가족들을 검색해봤대요. ‘엄마와 자기 이름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할머니는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면서 놀라더라고요. 할머니가 봉사활동을 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유명할 줄은 몰랐대요.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숙제가 있다고 저를 인터뷰했는데, ‘좋은 일 하시는 분을 잘 인터뷰했다’며 칭찬도 받았고요. 봉사하면서 상도 받고 칭찬과 격려도 많이 받았지만, 가족이 인정해주는 것이 제일 뿌듯하고 기쁘네요.” 강민정 씨는 ‘주말에 하는 도시락 배달 봉사에 손녀도 함께 가곤 한다’며 웃는다. 그는 주중에는 손녀를 돌봐주는 평범한 할머니지만, 금요일과 주말에는 베테랑 봉사원으로 활약한다.

강민정 씨가 걸어 온 봉사활동의 자취는 누구보다 선명하

다. 23년간 대한적십자사 봉사원으로 약 2만 시간을 활동하며 범물2동 산울림봉사회 조직,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수성구지구협의회, 대구광역시협의회 회장을 거쳐 전국협의회 최초의 여성회장까지 역임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봉사원들을 이끈 공적을 인정받아 자랑스러운 대구시민상, 나눔국민대상 국민포장 등을 수상하고 2022년에는 제34회 아산상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다.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다

평범한 40대 가정주부였던 강민정 씨가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중대한 결심이라기보다는 가볍게 일상의 변화를 시도한 정도였다.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회장이었던 시숙이

봉사활동을 권유했고, 때마침 아이들도 대학에 진학해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그는 흔쾌히 응했다. 2000년 6월 적십자 봉사원으로 입회해 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범물2동 산울림봉사회를 조직하고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봉사활동은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전에는 남편에게 뭐 해달라며 조르는게 많았어요. 특히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 보내달라고 많이 했죠.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고, 그분들을 도우면서 저는 정말 축복받은 환경에서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뭐 해달라는 말이 쏙 들어갔지요.”

마음이 바뀌자 강민정 씨의 삶은 받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장애인 활동 도우미, 지역 독거노인 돌봄, 무료 급식 지원, 음식 나눔 행사도 적극 참여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17년 포항 지진, 2019년 고성 산불 현장에도 달려가 급식봉사와 재해구호활동을 펼쳤다. 중국 사천성, 베트남, 네팔 등 해외 봉사에도 참여했다. 2011년에는 한복을 입고 싶어도 비싸고 구하기 힘들다는 고려인 재외동포들의 사연을 접하고 한복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했다.

적십자 봉사원이라는 자부심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강민정




어버이날 급식봉사 활동에 참여한 강민정 씨.



네팔봉사활동에 참여한 강민정 씨.

씨의 술선수범은 같은 봉사원들의 마음도 사로잡았다. 2019년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전국협의회 최초 여성 회장으로 선출되어 전국 12만 명 봉사원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됐다. 때마침 터진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의 할 일은 더욱 많아졌다. 지역 거점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의료진에게 영양식을 전달하고, 전국에서 온 119 구급대원과 소방관들을 위한 식사도 제공했다. 기부 물품을 필요한 곳에 나눠주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임기를 마친 지금, 평범한 봉사원으로 돌아가 여전한 방식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범물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고, 지역의 홀몸 어르신들을 챙긴다. 적십자 봉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 달려간다. 그동안 적십자 활동가들이 하던 신입 봉사원 교육도 직접 맡아 진행하고 있다. 약 2만 시간을 함께한 적십자마크가 선명한 노란 조끼는 강민정 씨의 자부심이 됐다.

“가끔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면 돈 얼마 받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활동비를 기부하며 봉사하는 것을 모르신 듯합니다. 전국 곳곳에 퍼져 있는 적십자 봉사원은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적십자 봉사활동의 가치를 더 많이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글 편집부